

# 인디아 브리핑

## 불확실성 완화 속 안정세 지속

### Summary

지난 2주(2026년 6월 22일~7월 3일) 동안 인도 증시는 중요한 매크로 및 기업 관련 뉴스가 없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와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이 지속되면서 안정세를 보였다(+1.1%).

업종별로는 IT 서비스 업종의 변동성이 두드러졌다. 글로벌 IT 투자 둔화 우려로 주요 IT 서비스 업체들의 주가가 52주 신저가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지난주 ECB(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케빈 워시 연준(Fed) 의장이 인플레이션 기대와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됐다. 이에 글로벌 IT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IT 서비스 업종은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고, 첫 주 하락분을 만회하며 기간 중 보합세(+0.0%)로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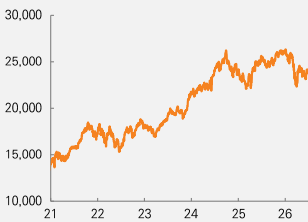
전력설비 업종은 인도 정부가 중국계 전력장비 업체 4곳의 향후 2년간 핵심 전력망 구축 관련 공공입찰 참여를 허용하면서 경쟁 심화 우려가 확대됐다. 이에 2020년 국경 분쟁 이후 중국 업체 배제에 따른 수혜를 누리온 히타치 에너지 인도 등 주요 전력설비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8~10%). 이번 조치는 인도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규제 완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급증하는 전력 인프라 수요에 비해 부족한 장비 공급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주부터 주요 인도 기업들의 FY27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 IT 서비스 업체들이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실적 개선이 제한되면서 업종 주가의 본격적인 반등을 이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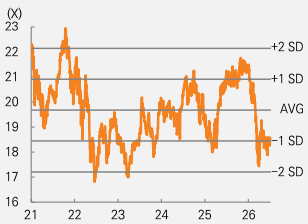
한편, 6월 초 몬순 시작 이후 4주간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4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요 우기 작물의 작황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농촌 소비 둔화와 농산물 가격 상승을 통한 CPI 부담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고온·건조한 날씨는 음료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바른 베버리지(VBL IN, 매수) 등 주요 음료 업체에는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의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와 글로벌 거시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시장 전반의 상승보다는 실적 가시성이 높은 소비재 중심의 차별화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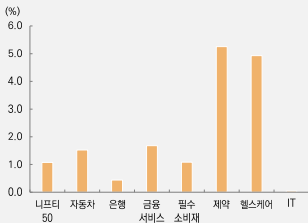
Nifty 50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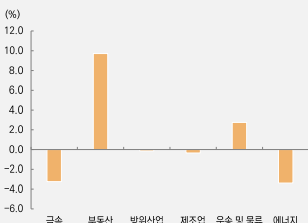
Nifty 50 P/E 밴드 차트



지난 2주간 인도 주요 업종 수익률 비교 I



지난 2주간 인도 주요 업종 수익률 비교 II



[인도]

정우창

wcchung@miraesasset.com

표 1. 인도 주요 지수 수익률

지수	투자수익률 (%)							
	1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Nifty50	0.9	1.1	3.7	6.9	-7.8	-4.5	25.6	54.4
Nifty Next 50	0.1	-0.1	3.5	16.6	2.6	5.7	64.5	87.5
Nifty Midcap 50	1.1	0.3	3.4	16.5	1.6	5.5	75.3	139.1
Nifty Midcap 100	0.6	-0.5	2.5	15.9	1.3	4.2	73.5	130.2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주요 뉴스 및 이벤트 분석

#### 평년을 하회하는 몬순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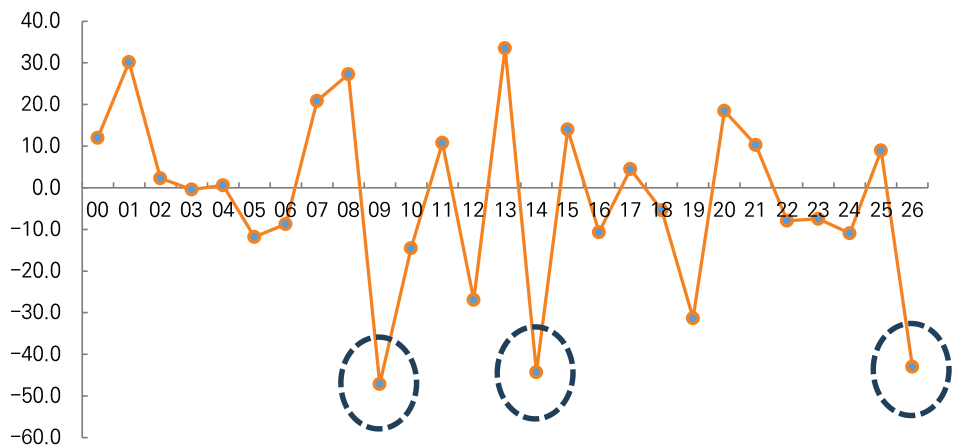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몬순이 시작된 6월 1일부터 최근 4주간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4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우기 작물의 작황 부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농업은 여전히 GDP의 약 15%, 고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따라서 가뭄은 농촌 소득 감소와 소비 둔화(인도 전체 소비의 약 50%)로 이어질 수 있으며, 농산물 생산 감소는 식품 물가 상승을 통해 CPI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아직 몬순 초입 단계인 만큼 최종 강수량은 9월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인도 기상청(IMD) 등은 올해 엘니뇨 발생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엘니뇨는 적도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도의 강수량 감소와 가뭄 가능성을 높이는 현상이며, 남방진동지수(SOI)가 마이너스를 기록할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SOI는 4월과 5월 각각 -11.2, -14.5를 기록하며 202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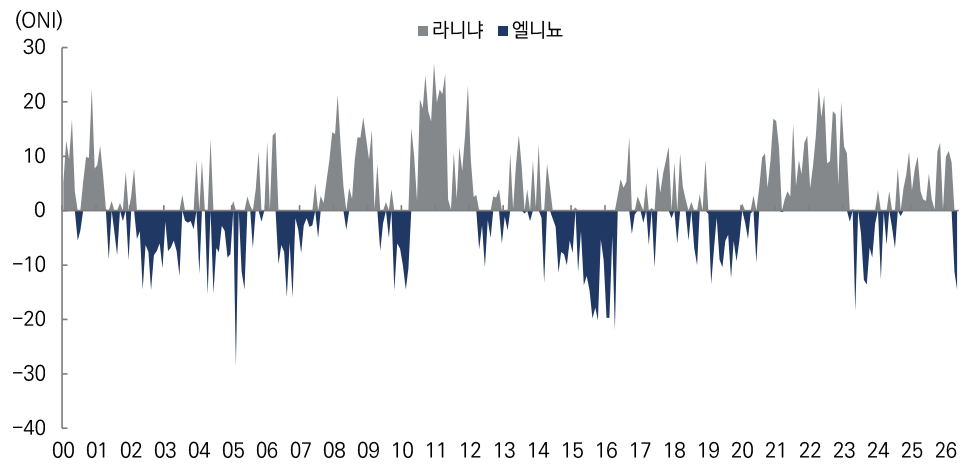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 완화로 하락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변수에 따른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여기에 강수량 부족이 이어질 경우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물가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고온·건조한 날씨는 음료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바론 베버리지(VBL IN, 매수)에는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인도 6월 강수량의 장기평균(LPA) 대비 편차 추이



자료: 인도 기상청,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남방 진동 지수(Southern Oscillation Index)에 따른 엘니뇨 vs. 라니냐 추이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Bureau of Meteorology,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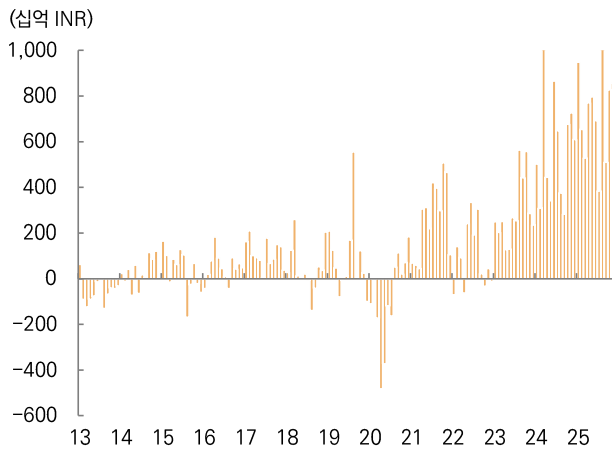
## 인도 주요 데이터

표 2. 인도 관련 주요 국내 ETF 수익률

ETF명	운용사	투자수익률 (%)						
		1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Tiger 인도 니프티50 (453870 KS)	미래에셋자산운용	0.3	1.0	3.3	6.5	-6.8	-2.7	22.2
Tiger 인도빌리언컨슈머 (479730 KS)	미래에셋자산운용	1.5	1.4	3.0	9.4	-4.9	8.6	-
Tiger 인도 니프티50 레버리지(합성) (236350 KS)	미래에셋자산운용	-0.6	2.3	7.1	11.7	-15.9	-11.9	27.1
Kodex 인도 Nifty50 (453810 KS)	삼성자산운용	0.5	1.5	3.5	6.3	-7.2	-3.4	21.1
Kodex 인도타타그룹 (477730 KS)	삼성자산운용	0.2	-0.2	-0.1	3.1	-6.8	-7.1	-
Kodex 인도Nifty50레버리지(합성) (453820 KS)	삼성자산운용	1.5	1.9	6.2	10.3	-16.7	-14.2	24.1
Kodex 인도Nifty미드캡100 (0000H0 KS)	삼성자산운용	-0.1	-0.8	1.1	14.5	1.9	5.2	-
ACE 인도시장 대표 BIG5그룹액티브 (487920 KS)	한국투자신탁	0.8	-0.1	1.0	10.8	-1.8	1.9	-
ACE 인도컨슈머파워액티브 (487910 KS)	한국투자신탁	-0.2	-0.1	2.8	10.4	-4.5	-1.4	-
KIWOOM 인도Nifty50(합성) (200250 KS)	키움투자자산운용	0.2	0.8	3.1	5.8	-7.7	-4.6	21.7
RISE 인도디지털성장 (498610 KS)	KB자산운용	0.5	0.5	0.1	0.2	-16.5	-17.4	-
에셋플러스 인도일등기업포커스20액티브 (0002C0 KS)	에셋플러스자산운용	-3.0	-3.0	0.3	18.7	-0.7	-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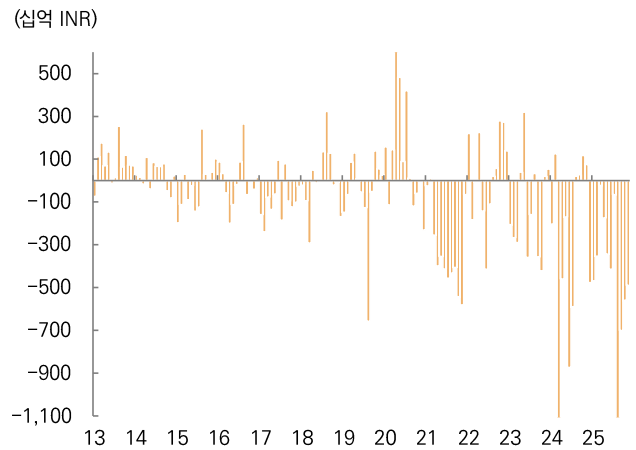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국내기관 투자자 주식 순매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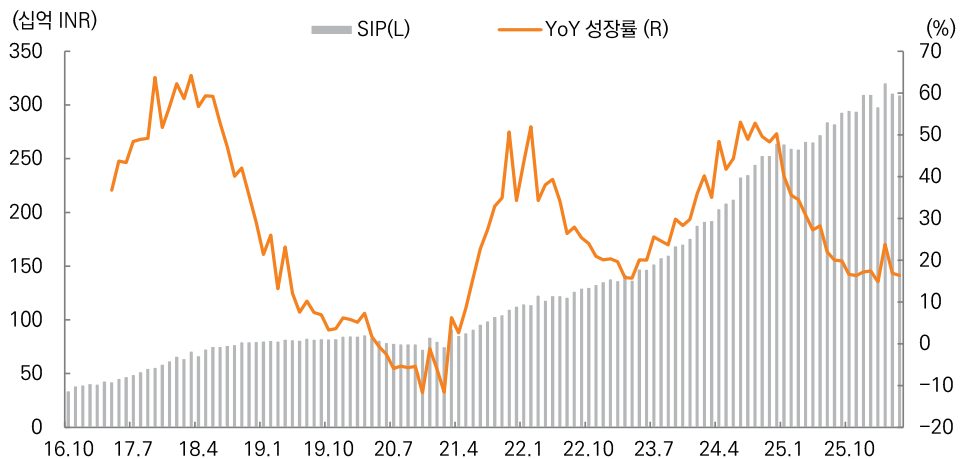
자료: Moneycontrol,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해외 투자자 주식 순매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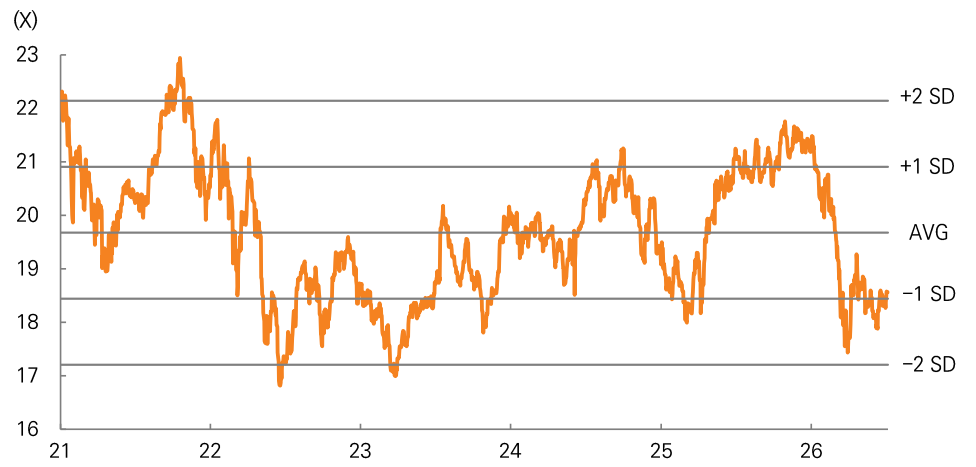
자료: Moneycontrol,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SIP 적립식 펀드 월 단위 유입액 추이



자료: AMFI,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Nifty 50 P/E 밴드 차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3. Nifty 50 주요 기업 수익률\*

기업명	시가총액 (십억 INR)	지수 비중(%)	2주간 수익률 (%)	투자수익률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Reliance Industries	17,647	9.0	-0.4	-1.1	-0.7	0.4	-13.1	-13.9	9.4
HDFC Bank	12,337	6.3	2.7	0.6	6.3	5.6	-15.4	-17.9	-6.8
Bharti Airtel	11,922	6.1	0.0	3.2	4.7	6.6	-9.3	-4.5	117.3
ICICI Bank	10,125	5.2	4.8	1.7	13.6	14.6	0.0	-1.4	49.7
State Bank of India	9,600	4.9	0.5	-0.5	7.2	2.5	3.9	30.4	77.6
Tata Consultancy Services	7,574	3.9	-1.5	-0.1	-6.6	-14.2	-33.7	-36.4	-36.0
Bajaj Finance	6,421	3.3	7.2	5.2	17.6	21.9	6.2	12.1	40.7
Larsen & Toubro	5,540	2.8	-4.3	-4.5	1.9	9.1	-1.8	13.1	64.1
Hindustan Unilever	5,172	2.6	0.3	1.2	5.3	6.7	-8.3	-4.2	-18.5
Sun Pharmaceutical Industries	4,570	2.3	3.6	2.3	6.5	12.4	8.9	14.7	84.4
Maruti Suzuki India	4,517	2.3	7.2	4.5	10.1	13.2	-16.9	14.8	48.5
Adani Ports and Special Economic Zone	4,318	2.2	2.1	4.4	3.9	35.7	27.7	32.1	154.2
Infosys	4,249	2.2	-0.4	0.6	-14.3	-18.1	-33.6	-33.8	-21.5
Adani Enterprises	4,181	2.1	5.7	5.7	9.8	68.9	42.2	23.6	34.7
Axis Bank	4,175	2.1	-1.2	-2.5	6.9	7.8	3.7	14.0	36.7
Titan Company	3,961	2.0	0.9	4.0	9.1	5.1	8.5	21.4	46.8
Kotak Mahindra Bank	3,946	2.0	-0.6	-3.0	4.1	10.0	-7.6	-6.7	7.6
Mahindra & Mahindra	3,901	2.0	2.0	-1.4	4.2	4.9	-16.3	0.2	113.7
ITC	3,633	1.9	-0.9	0.0	4.7	1.0	-11.2	-26.3	-37.4
NTPC	3,456	1.8	-2.6	1.2	-2.8	-2.6	2.4	9.0	86.4
UltraTech Cement	3,455	1.8	3.1	2.0	5.6	7.0	-3.9	-5.7	38.5
HCL Technologies	3,091	1.6	0.6	3.5	-3.4	-17.2	-27.6	-31.1	-3.6
Bharat Electronics	3,056	1.6	-2.1	2.7	2.8	-2.1	1.6	-1.6	237.8
Bajaj Finserv	3,034	1.5	7.1	7.4	9.3	13.4	-7.2	-4.9	23.1
JSW Steel	3,008	1.5	-4.5	-0.1	-6.3	8.5	4.6	18.4	54.9
Oil & Natural Gas Corporation	2,992	1.5	-3.4	2.0	-11.2	-15.6	0.6	2.2	46.0
Nestle India	2,815	1.4	3.2	4.1	4.9	20.0	11.2	22.7	29.0
Bajaj Auto	2,735	1.4	-2.8	-0.6	-4.6	11.0	2.7	17.7	112.2
Eternal	2,722	1.4	6.6	10.4	14.0	21.3	0.9	7.7	272.3
Coal India	2,704	1.4	-2.8	0.8	-7.1	-4.5	4.1	21.6	89.4
Power Grid Corporation of India	2,677	1.4	-1.5	1.4	1.0	-2.5	8.4	1.1	53.2
Asian Paints	2,626	1.3	0.2	3.5	2.8	26.4	-3.0	14.1	-18.5
Shriram Finance	2,503	1.3	6.2	3.1	16.5	15.3	6.7	59.8	202.5
Tata Steel	2,369	1.2	-4.6	0.6	-10.4	-1.3	4.0	18.8	67.8
Grasim Industries	2,165	1.1	1.0	1.7	2.6	21.7	11.0	13.8	78.0
Hindalco Industries	2,142	1.1	-5.6	0.0	-16.3	2.8	1.2	37.3	123.9
InterGlobe Aviation	2,098	1.1	8.1	-0.4	20.3	25.8	8.5	-5.5	105.7
Eicher Motors	2,015	1.0	-3.6	-3.4	2.9	11.3	-2.4	32.0	102.1
Wipro	1,849	0.9	-2.6	0.6	-13.7	-10.8	-32.0	-31.8	-10.1
SBI Life Insurance Company	1,794	0.9	-0.6	2.5	0.3	-2.6	-14.5	-0.5	37.8

주: 지수 비중이 높은 순서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